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Internet Misogyny in a Post-Feminist Era

저자 (Authors)	정인경 Chung, In-Kyoung
출처 (Source)	페미니즘 연구 16(1) , 2016.4, 185-219(35 pages) Issues in Feminism 16(1) , 2016.4, 185-219(35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여성연구소 KOREA WOMENS STUDIES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64716
APA Style	정인경 (2016).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페미니즘 연구, 16(1), 185-219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인터넷 여성혐오*

정 인 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오늘 여성혐오의 새로운 점을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기반과 그것이 창조한 사이버 공간에 초점을 맞춰 다뤄보고자 한다. 수많은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혐오는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온라인 여성 혐오의 특징은 그것이 안티 페미니즘을 표방한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시대 규정 속에서 다뤄보고 페미니즘이 시대착오적 기획이라는 만연한 인식을 재점 검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인터넷 여성혐오 문화를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으로서 성차의 윤리를 제시해볼 것이다.

주제어

인터넷, 여성혐오, 안티페미니즘, 포스트페미니즘, 성차의 윤리

1. 문제제기

인터넷의 발달은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사이버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4849).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정치학.

커뮤니티를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소통이 대표적이다. 사이버 커뮤니티의 인간 관계는 현실의 그것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소통의 매개로서 인터넷 기술이 부과하는 제약 또는 가능성에 의해 새롭게 주조되는 측면도 있다. 이른바 인터넷 소통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이 존재하며 이것이 온라인 사회성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기반과 그것이 창조한 사이버 공간에 초점을 맞춰 여성혐오(misogyny) 현상을 다뤄보고자 한다. 인터넷 여성혐오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이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으로서 ‘○○녀’로 대표되는 여성에 대한 비하, 노골적인 성적인 욕설, 여성가족부에 대한 회화화, 페미니스트에 대한 적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여성혐오 현상으로 한 데 묶을 수 있는 것은 여성을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삼고 열등한 존재로 표상한다는 데 있다.

사실 이 같은 여성혐오는 인터넷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더욱이 최근에 부상한 전례 없는 현상도 아니다. 여성혐오는 말 그대로 여성을 싫어하는 것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형태의 사회에서 발견되는 편재하는 것이다. 문학·역사·철학·예술·종교 등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에 다양한 변이는 있을지언정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Gilmore, 2001: 2-8).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 또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성은 소유와 교환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것은 체계적으로 가치절하 되었기 때문이다(Beauvoir, 1977).

페미니즘이 맞서 싸운 것이 바로 이러한 여성혐오이다. 여성을 인간성에 미달하는 열등한 존재로 비하하고 멸시하는 한편, 재생산의 필요와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여성의 육체를 이용해 온 사회 제도와 관념에 도전한 것이 페미니즘인 것이다.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 부상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호소하여 여성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옹호해 온 이념이자 실천으로서 페미니즘이 없었다면 현재 여성이 누리는 법적인 지위와 권리

는 성취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보편적인 인권은 자명한 진리로 간주되며 인종, 피부색, 종교, 성을 근거로 한 차별은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에서 기본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명시함으로써 시민권의 평등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혐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신하고 편협하는 등 여성을 열등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것은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육체적·정신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혐오는 여전히 지배적인 문화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성을 규범으로, 여성을 그 변이로 사고하는 성차(sexual difference)의 인간학을 통해 작동한다. 인간성의 실현과 결부되는 문화, 정신, 이성 등은 남성 또는 남성적인 것으로, 그것의 부정 또는 결핍으로서 이해되는 자연, 육체, 감정 등은 여성 또는 여성적인 것으로 표상되는 이원론이 대표적이다(Lloyd, 1993; Fraisse, 1993; Collin, 1993). 이 때 양자는 상보적인 관계로 보이지만 전자가 일차적이고 우월한 향이며 후자가 부차적이고 열등한 향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성차와 결부된 위계적 이원론은 정치이론의 주요 범주인 공과 사의 구별에도 적용된다. 동물적인 본성을 초월하여 인간성을 실현하는 세계로서 국가, 노동, 과학, 예술 등의 영역은 남성의 공적인 세계로, 반면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과 생활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가족은 여성의 사적인 세계로 간주되는 것이다(Elshtain, 1981). 이러한 공·사 이원론은 ‘다르지만 동등한(different but equal)’ 차이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평등한 시민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여성혐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대중문화를 여성혐오의 틀로 분석한 우에노 치즈코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젠더 질서가 성별이원제의 형태를 띠며 그 핵심에 여성혐오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치즈코, 2014: 12). 그녀가 말하는 성별이원제가 곧 위계적인 이원론과 결부된 성차의 인간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혐오는 특정한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스며있는 여성의 열등성을 전제하고 강화하는 관념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본 연구는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문명의 관념을 비판적으로 인식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 여성혐오의 새로운 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우선 앞서 언급한 인터넷 기술이 창조한 사이버 커뮤니티와 그 소통 문화의 특징들과 관련된다. 또한 오늘 여성혐오는 ‘안티페미니즘’의 성격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를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시대 인식과 관련하여 다뤄보고, 페미니즘을 시대착오적 기획으로 인식하는 논의의 문제점을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일종의 유희로 자리 잡은 여성혐오가 적대와 증오가 표출되는 한국 사회 문화의 일단을 드러낸다고 보고 성간 적대와 증오의 원환을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계기로써 성차의 윤리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인터넷 ‘마을 세계’와 여성혐오의 사회성

과학기술을 제쳐두고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논하기 어렵다. 매일의 삶이 과학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늘 자동차와 휴대폰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는 것조차 힘들다. 이러한 현실은 일종의 ‘도구장치 패러다임(device paradigm)’의 등장으로 운위되기도 한다. 어떤 한정된 편의성만을 위해 고안된 간편한 도구가 일상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환경과의 접촉이 줄고 특정한 유형의 생활 방식이 지배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테일러, 2001: 16).

그런데 오늘 일상을 주도하는 기술은 단순한 도구장치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을 매개로 인간의 활동이 재조직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미와 관계 양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정보통신 기술은 사회의 전 부문에 영향을 미치면서 과거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위 “네트워크 사회”(Castells, 1996)가 그것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무수한 양의 정보가 교환되는 등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인터넷은 가상의 공간과 소통 양식을 만들어내면서 인간 관계를 새롭게 구조화하고 있다. 인터넷 소통에 주목한 램모어와 너스바움은 이를 “마을 세계(the world of the village)의 재창조”로 표현한다(Levmore and Nussbaum, eds., 2010: 1). 이는 생활에 필수적인 유용한 정보를 얻는 공간으로서 마을이 인터넷을 매개로 전 세계로 확장된 일종의 공간적 압축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이 창조한 마을 세계가 과거의 마을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본래 마을 단위의 생활에서 인간은 면대면 접촉을 통한 개별 경험이나 반복 행동을 거쳐 정보를 습득했다면, 인터넷 마을 세계에서는 면대면 접촉, 직접 경험을 통한 시행착오 없이 상당한 양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터넷을 통한 연결 덕분에 세계적인 규모로 신속하고도 자유롭게 엄청난 양의 정보가 이동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들의 인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유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바탕에는 수많은 소통하는 행위자(communicative player)가 있다. 인터넷은 이 행위자들의 소통 매개이고 이른바 정보가 그 소통 내용인 것이다. 특히 평판은 행위자들이 주고받는 주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램모어와 너스바움(Levmore and Nussbaum, eds., 2010: 3)은 이 평판이 만들어지고 변경되는 속도가 인터넷의 진정한 새로운 점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적 평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방과 헐담 즉,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등 자존감을 훼손하는 발언은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 세계와 달리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 마을 세계에서는 부정확하고 비열한 내용으로 특정인이나 집단을 비방하는 일이 훨씬 쉽게 일어나며 그에 대해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결정적으로 무분별한 혐오 표현(hate speech) 또는 저급한 말(low value speech)이 ‘정보’가 되어 인터넷 망을 통해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고 한 번 퍼져나간 내용은 돌이킬 수가 없다. 현실 세계에 저항력을 갖는 독자적인 세계가 온라인에 구축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사이버 커뮤니티의 모욕적 발화는 ‘일베 현상’을 통해 부각되었다. 일베식 “막장” 행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김치녀”를 위시한 여성비하, “홍어” 등의 지역비하, 희생자나 고인에 대한 도를 넘은 모욕적이고 선정적인 표현 등의 문제가 화제가 된 것이다(강정석, 2013: 287; 정대훈, 2013: 331; 한윤희, 2013: 16). 그런데 일베 현상에 주목한 논의들은 대개 그것을 야기한 사회적 배경으로서 민주화 이후 정치적 갈등 구조에 주목하거나 그 이용자들의 사회학적 특성을 추론함으로써 혐오 표현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시도한다. 특히 일베의 주 이용 계층으로 알려진 청년 세대의 세대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이 지닌 통찰을 참조하면서도, 인터넷 문화의 특수성 속에서 혐오 발언의 범람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사이버 커뮤니티를 현실의 반영 또는 연속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기술적 특성과 연계된 온라인에 고유한 문법과 담론 재생산 구조에 착목해보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베 현상의 기원으로 지목되는 ‘디시인사이드’의 특성을 검토한 논의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이길호, 2012, 2014; 강정석, 2013; 정대훈, 2013).

디시인사이드는 독특한 인터넷 문화를 개척한 사이버 커뮤니티의 시초로 간주되는데 특히 이것의 ‘장소성’에 주목한 이길호(2012, 2014)의 논의를 보면, 온라인 상의 저급한 발화나 혐오 표현 등은 ‘반사회적’이라기보다 그 자

체의 사회성의 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에서 핵심은 익명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다.

대개 온라인의 익명성은 인터넷 문화를 좌우하는 핵심으로 간주된다. 익명성으로 인해 사회적 금기를 위반하는 다양한 일탈이 훨씬 자유롭게 일어나며 모욕적 발화를 비롯한 반사회적 표현들도 그 결과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면 온라인 소통 문화는 익명성에 의한 병리적 현상, 즉 무책임한 방종으로 이해되기 쉽고, 또 이에 따라 익명성의 제한이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불모의 논쟁이 재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길호(2014: 246-247)에 따르면, 익명성은 현실의 동일성을 차단하는 규범일 뿐이다. 즉, 익명성을 통해 분리되는 것은 현실의 자기일 뿐이며 이 같은 분리를 통해 실존하는 사이버 공간의 존재들은 그 ‘커뮤니티’ 내에서 상호작용하면서 그에 고유한 사회성을 형성한다.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이름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면서 자신의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조회 수나 댓글 또는 ‘좋아요’ 등 타인의 공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온라인 상의 이름과 평판에 집착하는 현상은 인터넷 기반의 장소가 독자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 고유한 사회성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글, 그림, 영상 등은 타인의 공감을 얻고 이를 통해 위세를 과시하려는 욕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게시물의 선정성과 자극성 심지어 반사회성조차도 타인의 즉각적 반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인정받으려는 전략, 즉 인터넷의 사회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 ‘거대한 거짓’의 장소이다. 소위 ‘인중’도 조작되는데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고유한 속성과 관련된다. 타인의 공감과 인정을 얻기 위한 행위에서 게시물의 진위 여부는 부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대한 거짓’이 일종의 온라인 문법이 되는 것이다(이길호, 2014: 254-255).

권위적인 운영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검열이나 확인 등의 과정 없이 자유롭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일베는 이러한 온라인 문법의 극단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일베에서는 특히 수준이 저열하고 심각한 왜곡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소통되는데 반응만 좋다면 수많은 공감을 통해 어떤 정보든 ‘사실’이 되고 또 이 ‘사실’에 근거한 새로운 사실이 생산되는 것이다(강정석, 2013: 292).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모욕 등, 도를 넘은 일베의 혐오 표현이 인터넷 문화 전반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지만 온라인 소통의 일반적인 특징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보다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감정의 교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커뮤니티의 특성에 주목한 이러한 논의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반사회적 또는 ‘패륜적’ 게시물이 온라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이유를 적절히 설명해주는 듯하다. 이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와 조작이 난무하는 현상을 익명성과 결부된 무책임한 방종으로 설명하거나 극단적인 욕설과 혐오 발언을 청년 세대의 좌절과 분노의 표현으로 해석하는 논의가 이를 구조적 문제로 치환할 뿐 사이버 커뮤니티에 고유한 사회성이나 일종의 ‘놀이’ 문화의 속성을 짚어내지 못하는 것과 대조된다.

물론 ‘놀이’의 문화 또는 소통 방식의 고유성에 주목한다고 해서 사태의 심각성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소통’되는 것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떠난 혐오의 정서 그 자체라고 할 때, 혐오의 대상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마을 세계 내 평판의 소통에 주목한 논의들은 온라인 혐오 표현 내지 저급한 발화의 영향이 성별로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비방과 혐오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Levmore and Nussbaum, eds., 2010: 4).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온라인 여성혐오는 남성 회원이 다수인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위의 논의를 적용하면 여성혐오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고 적절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평판과 위세를 추구하는 확실한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이 같은 온라인 여성혐오는 일베 탄생 이전에 이미 인터넷 문화의 한 요소였다. 흔히 인터넷 문화의 특징으로 지목되는 남성중심주의가 지시하는 것도 바로 이것인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물이 그 예들인 것이다(정대훈, 2013: 337; 한윤형, 2013: 15).

이러한 남성중심주의를 온라인 소통과 그에 고유한 사회성 형성과 관련지어 남성적 사회성이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치즈코(2014: 30-32)는 현 젠더 질서에서 남자의 가치는 다른 남자, 즉 동등한 성적 주체에 의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주체들 간의 상호 인정을 ‘호모 소셜’이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남성 간의 유대라고 번역될 수 있는 호모 소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여성을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혐오 또는 ‘타자화’이다.

여기에서 타자화란 주체의 시각에서 타자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주체는 자신이 마주한 대상인 미지의 존재가 야기하는 위협 또는 두려움 때문에 그 ‘차이’를 규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와 구별되는 ‘타자’가 정의된다. 여성혐오는 대상에 대한 지배 욕구를 반영한 타자화의 일종으로 남성 주체가 여성을 동등한 주체로 승인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오늘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남자다움을 인정받고 남성의 일원이 되는 남성적 사회성의 매개가 되고 있다.

남성들 간의 상호 인정과 유대에서 여성혐오가 수행한 역할이 문명의 상수였다면 오늘 여성혐오의 새로운 점은 그것이 인터넷 기술과 결합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기반 덕택에 비방과 모욕이 쉽게 이뤄지며, 또 더 빨리 더 멀리 퍼져나간다. 그리고 타인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여 인정과 공감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표현이 더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 여성혐오의 심각성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여성혐오를 통해 증진되고 강화되는 것이 온라인 사회성의 한 측면이며, 소통 행위자들이 그러한 사회성을 추구할수록 여성혐오는 현실에 저항력을 갖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사실이 되어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자기강화한다. 또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간 ‘정보’로서 여성혐오의 영향력이 사이버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 온라인에 접속하는 현실의 인간들의 사고와 언어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별 동일성(identity)의 형성에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온라인 여성혐오 담론: 남성의 피해의식과 여성의 자기혐오

온·오프를 넘다들며 도를 넘어서 ‘반사회적’ 행태로 유명해진 일베는 괴물 집단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베의 행태는 앞에서 언급한 온라인 유희 문화의 하나일 뿐이다. 즉 여기에서 사용되는 욕설과 혐오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의 댓글 그리고 게임 채팅에서 그대로 등장한다. 일베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윤보라, 2013: 35). 실제로 인터넷 포털이나 주요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의 여성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을 특정한 신체 부위로 환원하여 대상화하거나 외모, 나이, 사회적 능력 등을 통해 비하하고 멸시하는 등의 표현은 일베 외에도 널리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김수아, 2014: 17).

그러나 ‘일베’가 만들어낸 여성혐오 표현 중에서도 사회적 금도를 넘어서 것은 바로 여성을 성기로 환원함으로써 조롱하고 비하하는 ‘보지년’ 또는 ‘보슬아치’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보지년은 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간주하지 않을뿐더러 성적 도구로 대상화한다. 대상화는 여러 요소들을 내포하는 복합적 개념으로서 성별 관계의 맥락에서 이는 주로 도구적 이용과

결부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 자신이 이용하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때 여성은 육체 또는 육체의 일부로 환원 되거나 외모로 환원되며 이러한 환원으로서 대상화는 인터넷 여성 혐오의 핵심적 특징이다(Nussbaum, 2010: 71).

사실 현실의 남녀 관계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대상화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 여성은 실제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인공적 구성물로서 현실의 세계와 구별된다. 이는 인터넷 공간이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창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대상화를 실행하는 주체는 자신의 마음대로 여성을 대상화할 수 있으며 이 세계는 독자적인 현실성을 지니고 외부의 현실에 대해 저항력도 지닌다(Nussbaum, 2010: 74-75). 여성혐오에 의해 구성된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은 어쩔 수 없이 ‘보지녀’ 또는 ‘보슬아치’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혐오를 담은 ‘보지녀’ 또는 ‘보슬아치’라는 규정을 통한 대상화는 의도적으로 여성의 인간성을 부정하며 이를 통해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성기로 환원된 여성은 남성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며 그 유용성은 오로지 남성 성욕의 견지에서만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공개적인 대상화는 여성의 체면을 구기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등 주체적인 감정을 침해한다(Nussbaum, 2010: 73).

다른 한편 ‘보지녀’는 여성을 혐오하는 남성들이 욕망하는 것이 바로 여성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실에서 소유할 수 없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서 여성을 남성 주체가 영유하는 한 방식이 여성을 성기로 환원하여 낙인찍는 것이다. 결국 혐오와 멸시의 방식으로 여성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대상화는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욕망의 뒤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을 성을 매개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과렴치한 존재로 묘사하는 ‘보슬아치’는 그러한 원한의 표출인 것이다.

여성을 성적 존재로 표상하고 육체의 일부로 환원하여 대상화하는 것 외

에도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증오와 혐오를 조장하는 담론이 있다. 이른바 ‘○○녀’로 대표되는 담론이 그것이다. 이것은 문제적 행위를 한 여성을 겨냥하지만 여성에 대한 특정한 표상을 재생산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모든 여성을 혐오의 범주에 넣고 여성의 말과 행위를 규율한다. 온라인 마녀사냥의 원형이 된 2005년 지하철 ‘개똥녀’ 사건은 시민의식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몰상식하기까지 한 특정 여성의 행동을 문제 삼아 무차별적 혐오와 공격을 표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이후로 수많은 ‘○○녀’가 탄생하게 되는데 2006년의 ‘된장녀’ 그리고 최근의 ‘김치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녀’는 “개별 여성을 광장에 끌어내 낙인을 찍고 집단 처벌하는 방식”(윤보라, 2013: 46)의 하나로서 특정한 행태를 보이는 일부 여성을 문제 삼는 듯 보인다. 그러나 ‘○○녀’는 특정 사례들을 통해 ‘인증’되는 정형화된 여성의 표상이 되고 이에 따라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데 기여한다.

온라인 상에서 공감과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녀’ 담론은 지속적으로 변주되는데 이러한 여성의 표상을 입증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것이 실제 주변인물이 등장하는 경험담이다. 자기의 여자 친구, 또는 친구의 여자 친구, 주변의 여자 지인 등이 그랬다는 식의 얘기들로 “신입 여직원이 노래방 도우미 알바한다”, “결혼식 축의금 대신 내달라고 부탁한 여성 지인이 수수료 떼고 송금했다”, “남녀공용 화장실 이용한 친구가 무고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등이 그것이다(윤보라, 2013: 46-47).

그러나 인증조차 조작되는 ‘위대한 거짓’으로서 온라인 문법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보라(2013: 47)는 ‘작성자의 다른 글 보기’ 기능에 의해 날조된 이야기임이 드러나는 등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험담이 허구로 판명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것들 중에는 남성이 여성을 사칭하여 최대한 ‘욕먹어 마땅하게’ 글을 올린 사례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상의 예처럼, 남초 커뮤니티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형태로 등장하는 여성에 대한 표상은 대개 공공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남성의 능력에 기생하며 무엇보다 성적으로 방종한 존재이다. ‘군대도 안 가는’ 한국 여성들은 성형중독 ‘성피’에, 공공 장소 등에서 새치기를 일삼고, 회사에서는 생리휴가를 쓰거나 칼 퇴근해서 일을 떠넘기며, 연애와 데이트에서는 무조건 돈 많은 남자와 명품만 밝히는 속물이고, 어학연수 가서는 외국 남성과 동거하는 ‘걸레’ 등으로 변주되는 것이다(윤보라, 2013: 49; 김수아, 2014: 20-37).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유통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욕설과 혐오의 정서가 그저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유희로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 상 출처도 기원도 알 수 없고 사실 확인도 안 된 수많은 게시물들이 ‘정보’가 되어 순식간에 전 방위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인터넷 뉴스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 게시물들을 접하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의 일상으로 스며들어 ‘○○녀’는 결국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에서 소비되는 ‘사실’이 사람들의 자기 인식 및 타자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영향은 성별로 비대칭적인데 남성에게는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여성에게는 ‘자기혐오’가 유발될 수 있다. 먼저, ‘된장녀’ 또는 ‘김치녀’라는 서사를 소비하는 남성은 여성의 욕망을 규정하고 자신이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면서 피해의식을 키운다. 예컨대 한국 여성들은 “사치와 허영에 찌들어 가뭄을 사주지 않는 남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는 식이다(한겨레 21, 2015).¹⁾

1) 치즈코(2014: 72)는 실제 여성과 접촉을 하지 않는 남성일수록 ‘여자란 무엇인가’에 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현실의 여성과 괴리된, 그림으로써 거의 망상에 가까운 숭배 또는 혐오의 표상에 사로 잡혀 있는 남성이 현실의 여성과 연애를 하고 사랑을 나눌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이다. 이렇게 연애에서 ‘자발적으로’ 도태된 남성은 여성의 타락과 자신의 ‘순정’을 대비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혐오를 키우고 정당화한다.

남성의 피해의식과 결합된 여성혐오 정서가 일반화된 주요 계기로는 군가산점제 폐지가 꼽힌다. 1999년에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01년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남성의 반발이 거세지자 2009년에는 이 제도의 부활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이를 주제로 한 TV토론까지 개최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부여된 가산점을 폐지시킨 ‘이화여대’를 위시한 여성계는 ‘몰개념’ ‘꼴페미’의 대명사가 되었다.²⁾

이 사건을 둘러싼 온라인 담론에서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희생시켜 권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상된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이 국가적 의제로 수용되는 등의 변화 역시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의 실행으로 간주되면서 남성이 겪는 박탈감과 피해의식이 부각된다. 이러한 정서가 온라인 안티 페미니즘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가산점 폐지는 가히 한국의 온라인 안티 페미니즘의 발화점이라고 할 만하다.

이후 온라인 안티 페미니즘은 더욱 확산되는데, 생존 경쟁이 격화되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마당에 기존의 남성 ‘특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군가산점제 폐지 외에도 호주제의 폐지, 성폭력 특별법 제정, 성매매 특별법 제정, 각종 여성할당제, 생리휴가제, 부부장 간직 인정 등은 남성의 위기의식과 박탈감을 자극하는 주요 사례로 인식되면서 여성이 우대받는 사회에서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정당화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온라인 담론에서 여가부와 페미니스트 그리고 여성이 “악탈자”가 되고 남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은 흥미롭다(윤보라, 2013: 39-44). 여가부에 대한 조롱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적대는 일부 여성을 겨냥한 듯 보이지만 그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와 연결되는

2) 포털 검색 창에 군가산점 폐지, 100분 토론 등을 핵심어로 입력하면 안티페미니즘을 정당화하기 위해 생산되고 유포된 관련 동영상과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것이다. 이는 안티 페미니즘과 결합된 여성혐오 담론의 기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페미니스트로 상징되는 것은 무임승차자 여성이며 따라서 여성은 정당한 원한과 분노의 대상이자 가시적인 적이 된다.

“여가부, 꼴페미, 한국여자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군가산점도 못 받고, 회사에서 무거운 생수통을 끌으며, 여친에게 명품백 사주고” 차이는 불쌍한 존재(윤보라, 2013: 48), 즉 ‘박탈과 피해를 경험하는 한국 남성’이라는 표상은 고단하고 팍팍한 현실의 원인으로 여성을 지목하는 것이다. 한국 여성은 무엇보다도 이기적인 존재로 그려지는데, “군대 가서 고생한 남자”와 “편하게 놀면서 필요할 때만 권리를 주장하는 여자”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대표적이다(윤보라, 2013: 42).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한 서사에서도 남성의 피해의식이 표출된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가해자인 성폭력 등은 본래 성적 유혹자인 여성이 초래한 것일 뿐이며, 심지어 피해자를 가장한 여성이 사법체계를 동원해 순진한 남성에게 덫을 씌우는 것으로 재현된다. 한 마디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가해자로서 성을 무기로 무자비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는 여성으로 태어난 게 벼슬인 줄 안다는 남성의 원망과 한탄을 표현한 보슬아치라는 규정과 일맥상통한다.

일본에서 등장한 ‘남성보호법’도 남성의 피해의식이라는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남성연대’와 ‘일베’처럼 현대가 ‘남성 수난 시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성보호법’인 것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다는 시대인식 외에도 이들이 공유하는 게 하나 더 있다. 현실의 여성과 소통하기는커녕 스스로를 ‘성적 약자’로 표상하고 여성혐오 담론을 소비하는 것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성적 주체로서 여성의 욕망을 공격하고 ‘약자’ 남성으로서 ‘강자’ 여성에 대한 원한을 표출하는 것이다(치즈코, 2014: 64-84).³⁾

3) 이것은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제노포비아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유사하다. 이들은 이민

다른 한편, 여성혐오가 여성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이 긍정적 동일성의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여성혐오를 자기혐오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상당수의 여성은 문제가 되는 여성의 특징을 한심하게 여기거나 그러한 여성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녀’ 담론에 동참하면서 스스로를 규율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로서 여성의 욕망은 손쉽게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는 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혐오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⁴⁾

실사 인터넷에서 마주치는 혐오 게시물에 불쾌감을 느낀다하더라도 여성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꼴페미라는 낙인찍기와 신상털기 등 무차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터넷 상의 여성혐오가 여성을 효과적으로 침묵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페미니스트는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단계가 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적극적 ‘인증’ 또는 소극적 분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은 ‘무뇌아적’ ‘극렬’ ‘소수’ ‘꼴페미’의 표상이며, 그 결과 안티 페미니즘의 정서 역시 더욱 강화된다. 이는 ‘○○녀’ 담론에 내포된 여성혐오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가로막고 여성의 자기규율, 심지어는 자기혐오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자의 증가가 유럽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영토, 문화, 언어 등 통합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중의 불안과 걱정을 동원하는 정치적 수사로서 이민자는 원한이 표출되는 가시적인 적으로 부각된다(Betz, 1993).

- 4) 여성혐오는 여성에게 자기혐오를 유발하여 개별 동일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의 사회성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다(치즈코, 2014: 13).

4.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안티페미니즘

2015년 초, 한 남자 중학생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인터넷 여성혐오의 한 요소로서 안티 페미니즘을 널리 확산시켜 준 계기가 되었다. 이 학생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는 페미니스트가 싫고, 그래서 IS가 좋다”, “남성이 차별받는다”라는 내용을 남긴 것이 알려졌던 것이다. 이에 한 때 페미니즘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학생에 관한 뉴스가 한창일 무렵, 한 일간지의 논설위원은 ‘페미니즘의 종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중앙일보, 2015). 필자에 따르면, “페미니스트가 싫다”는 말은 한국 남성들의 분노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현실적 근거가 충분했다. 안티 페미니즘은 시대착오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칼럼리스트는 김모군 사건을 논평하면서 ‘IS보다 무뎌야적 페미니즘이 더 위험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여성신문, 2015).⁵⁾ 권력을 쥔 여성들이 이를 남용하면서 남자들의 정당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이 글은 인터넷 상에서 여성혐오 논란의 불을 지폈다.

두 논의의 공통점은 정서적 안티 페미니즘을 넘어 페미니즘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양자는 이른바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시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⁶⁾ 포스트라는 접두어의 ‘~(으)로부터 벗어나다’는 의미에 방점을 둔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역사적 시효만료를 선언하면서 그것이 낡은 정치적 기획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자율적

5) 김태훈, 〈그라치아〉 48호. 전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6) 2세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 그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포스트페미니즘’의 이론적 함축은 상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웰라한(Whelan, 1995)을 참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페미니즘을 시효만료한 기획으로 표상하는 대중 담론에 국한하여 포스트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여성대중운동은 소멸되었고 성평등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역사 교과서의 한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대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의 역사적 성과도 인정한다. 페미니즘의 기여가 있었기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성이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데 있다. 이는 페미니즘의 과제가 완수되었음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의 정치적 목표나 집합적 행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함축한 이 같은 인식은 일상적으로 만연한 것이다.

구래의 성별 구분과 대립은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개인적 성취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의 '탈정치화'를 지향하는데 이는 집합적 행동에서 개인적 윤리로의 강조점의 이동을 함축한다. 이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사회의 변형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변화이다. 합리적 행위자로서 개인은 동기부여만 된다면 얼마든지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페미니즘의 옹호자들은 기회는 널려 있고 그것을 잡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무능이라고 말한다(Anderson, 2015: 5).

개인적 성취를 강조하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수사는 지배적인 대중문화의 전경을 재현하고 있다. 최근 몇 십년간 베스트셀러 수위에 올라있는 온갖 자기계발서와 심리분석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주체로 간주된다. 이에 따르면, 도전은 구조의 제약과는 무관하며 오로지 개인의 심리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또 실패와 부작용을 딛고 일어서는 것도 전적으로 개인의 몫인데 그와 관련한 해답은 바로 지속적인 자기계발(self-empowerment)에 있다. 이것이 오늘 '자기계발 열풍'에 담긴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사실 '계발'은 2세대 페미니즘이 추구한 집합적 목표였으나 포스트페미니즘 담론에서 이것은 자기관리의 의미로 변용된다. 선택 역시 마찬가지이다. 2세대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자신의 육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관념에 입각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과 재생산에서의 선택권을 주창한 바 있다. 이것이 여성이 자율적 개인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선택을 옹호한 것이라면, 포스트페미니즘 시대에 여성은 이미 자율적 개인이고 무엇보다도 소비의 주체이다. 즉,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과 선택은 사적인 일상의 경험 및 소비 역량과 결부된다. 특히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행위야말로 여성의 자기표현의 핵심이자 자기계발의 주요소라고 할 수 있다(Anderson, 2015: 3).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 제약으로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불평등은 성별 격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성 내부의 격차로 엄존하고 있다. 우선, ‘여성이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착시효과는 주로 교육에서의 여성의 진출에서 기인한다. 능력주의(meritocracy)와 수월성이 강조되는 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성취가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2011년 기준, 75%로 남성의 대학진학률 70.2%보다 4.8% 포인트 높다. 또, OECD 평균 값도 2008년 기준, 여성 63%로 남성 50%보다 13% 포인트나 높다(여성가족부, 2013: 39).

그러나 대졸자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이러한 경향은 곧 역전된다. 2011년 기준,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3%이며 대졸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9.3%이다(통계청, 2012: 54). 전체 여성(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4.9%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6.9% 포인트 낮은 수치이다. 한편 임금 등에서의 성별 격차는 지속되고 있다. 2010년 기준,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수준은 61%로, 이러한 격차는 OECD 내 최고 수준이다(여성가족부, 2013: 41). 일자리의 ‘질’ 문제도 심각한데 2012년 기준, 여성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1.6%(남성 27.1%)로 남성에 비해 고용불안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3: 40).

여성의 현실은 고용과 임금뿐만 아니라 가족을 고려해야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즉, 저임금·고용불안 등 여성의 노동시장 열위는 가족 내 성별분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여성의 연령별 노동시장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여성은 대졸 여성이 취업하게 되는 20대 후반에 최고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비정규직 여성은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에 가장 높고 30대 초반에 가장 낮은 소위 ‘엠자형 곡선’을 그린다. 30대 여성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뚜렷한 이탈은 출산·육아가 유급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김혜영 외, 2005; 여성가족부, 2013: 55).

요컨대 고용의 수준, 일자리의 질, 임금 등의 거시 지표를 살펴보면 성별 격차는 여전하다. 이러한 격차는 정치적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빈곤, 건강 등 안전과 복지 분야에서도 여성의 취약성은 드러난다. 결국 통계 수치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영역만 고려하더라도 종합적인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스위스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취학 기회, 고용, 건강, 정치적 대표성 등에서 성별 격차를 수치화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2개국 중 117위로 최 하위권에 머물렀다(연합뉴스, 2014).

물론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진출은 눈부시며 일부 여성들은 ‘남성처럼’ 또는 ‘남성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한국에서 고시합 격율이나 약사 등의 전문직 여성 비율 증가를 통해 확인되지만 이것이 평균적인 여성의 현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역차별을 논할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지표를 대략만 살펴보아도 ‘포스트’페미니즘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이다.

오늘 자기계발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는 소수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모두에게 열린 가능성인 양 제시한다. 이처럼 자기관리와 개인적 성취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집합적 열망은 낡은 것으로 치부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희생자와 연계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피

된다. 희생자는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경영하지 못한 책임감 부족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패배자로 인식되는 것이다(Anderson, 2015: 20).

이렇게 오로지 개인의 의지와 자기계발만을 강조하는 문화에서는 사회 구조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거부되고 따라서 연대에 기반한 집합적 행동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만다. 반면,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희생자를 낳은 것은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만이 연대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페미니즘에서 정치를 제거한 포스트페미니즘의 수사는 피상적인 자기계발을 옹호하고 집합적 행동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설파하지만 그 근본에는 안티페미니즘을 담고 있다. 성별 불평등이 현존하는 사회에서 이는 정당화되기 어려운데 무엇보다도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열등한 지위를 영속화하는 데 공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성혐오의 한 양상이 안티페미니즘으로 발현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페미니즘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은 던져볼 필요가 있다. 성별 격차의 현존은 성차를 가시화하지 않으면서 중성적 개인의 성취를 옹호하는 것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터넷 여성혐오 현상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타자화 또는 여성적인 것의 체계적인 가치절하이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서 ‘성차’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회피하면서 이 현상을 적절히 다루기 어렵다.

5. 인터넷 여성혐오를 넘어: 성차의 윤리

상대에게 모욕을 주거나 위협하고 상대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등의 발언은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진다. 이 때문에 이른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서 옹호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규제되어야 하는가, 만일 후자라면 허용과 규

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규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인가 등이 논쟁이 된다. 세부적인 방법론을 논외로 한다면, 순전히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말은 사회 내에서 특별히 보호될 가치가 없으며 더욱이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표현은 기본적인 자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규제의 대상이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온라인 비방은 익명성 탓에 더 손쉽게 이뤄질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으며 이렇게 퍼져나간 내용을 돌이키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규제 접근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또, 혐오 표현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닐 경우에 규제와 처벌 같은 법적인 대응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혐오 표현에 관한 법리 논쟁이나 규제의 방식을 논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접근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소통 문화를 윤리적으로 고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에 주목하여 그것이 사회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윤리적 논의들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성간 적대과 혐오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 것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터넷 상의 모욕주기 또는 대상화가 성별로 비대칭적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탓이다. 인터넷 상에서 퍼지는 성적인 헐담과 비방은 여성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의도된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여성이 성적 평판에 더 취약하다는 점과 관련된다.

남성이라면 추문이 되지 않을 사안도 여성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성규범의 이중 잣대가 작동하기 때문에 성적인 비방은 여성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예훼손, 사생활, 유해정보 등의 문제를 개인의 권리와 침해의 관점에서만 다루면 온라인 비방이 미치는 영향의 성별 비대칭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혐오와 관련된 사이버 커뮤니

7) 인터넷 상의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익명성을 제한하거나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규제토록 하는 방식 등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Levmore and Nussbaum, eds., 2010). 본 논문의 접근은 이러한 법적 규제보다는 윤리적 성찰에 방점을 둔다.

티의 윤리적 쟁점을 성차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성뿐만 아니라 인종, 종족, 문화 등의 '차이'와 결부된 갈등이 극단적인 배제와 폭력의 위험을 낳고 있는 현실에서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의 모색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법적 권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타자에 대한 존중이 관계의 양식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공동체의 유대, 특히 시민들 간의 상호 관계를 구성하는 공존의 윤리는 요원할 것이며 오히려 혐오의 정서가 사회성의 요소가 되면서 갈등과 폭력이 반복적으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차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윤리적 관계의 모색은 다양한 차이에 대해 혐오와 배제를 감축하기 위한 성찰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기획으로서 이리가레(Luce Irigaray)의 성차의 윤리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성차는 차이의 관계의 원형이자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현실로서 인간을 사고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또, 인류 문명은 이러한 차이, 즉 양성의 관계를 규정하고 재생산을 도모하는 방식을 통해 '문화적 진화'를 이뤄왔다. 이것은 성차가 자연적 현실이면서도 그것을 조직화하는 문화를 매개로 조직되어왔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차는 오로지 자연의 요소로 분류되었고 그 문화적 의미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는 인간적 성취로 간주되는 문화에서 여성이 배제되었음을 의미한다. 자연적 요소로서 성차가 여성에게 할당됨으로써 문화 내에서 여성의 열등한 지위가 정당화된 것이다. 특히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자연적 재생산자로서 여성의 활동은 '문명의 침묵하는 토대'로 남아있다(Irigaray, 1985: 23-33).

바로 이 때문에 지난 반세기에 걸쳐 다수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문화와 자연,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정, 공과 사, 능동과 수동의 이원론이 후자에 대한 전자의 우월성을 가정한 위계적인 대당이며 이것이 근본적으로 성차의 은유로 작동한다는 점을 비판해온 것이다. 이리가레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구체적이고 자연적인 현실로서 성차의 존재에서 출발하여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 두 주체의 실존을 옹호하려는 기획이 그것이다.

이 들은 현실에서 늘 존재해 왔지만, 그 에 관한 표상은 지금까지 일자(the One)의 논리에 종속되어왔다.⁸⁾ 오직 일자와 그 부정들이 존재하는 이러한 차이의 관계에서는 진정한 차이가 사유되지 못한다(Irigaray, 2001).⁹⁾ 이는 결국 주체 남성의 시각에서 규정된 타자 여성이 존재할 뿐임을 의미하며 여성혐오가 그러한 논리의 한 양태라는 점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이처럼 존재한 적이 없는 성차를 사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리가레는 생성(becoming)에 초점을 맞춘다. 그녀에 따르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인간성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선천적으로 인간적 특징을 지니지만 그것은 인간성에 도달하는 잠재력이 있음을 의미할 뿐이므로 지속적으로 인간으로 생성(human becoming)될 필요가 있다(Irigaray, 2008: 30).

이는 자연의 종의 일부로서 인간과 우리가 스스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으로서 인간성을 구별하고, 후자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일종의 윤리적 요청으로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리가레가 ‘인간적 생성’으로 명명하는, 다른 종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독특한 측면은 무엇인가? 그녀는 인간성의 잠재성을 질적인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8) 이를 선구적으로 주목한 이는 보부아르(Beauvoir, 1977)이다. 1949년 출판된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보부아르는 ‘타자(the Other)’ 여성이라는 관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남성적·여성적이라는 용어가 대칭적으로 사용되지만 그것이 실제로 대칭적인 차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남성이 주체이고 절대자’이며, 여성은 남성과 관련해서만 정의되고 분화되는 ‘우연적이고 비본질적인 타자’이다.

9) 일자의 논리에 갇힌 여성에 관한 무수한 관념은 그것이 숭배이든 혐오이든 주체 남성의 시각에서 정의된 것이기에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한다. 지배적인 여성성 통념이 여성의 자율적인 욕망과 거리가 먼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차이’, 그 중에서도 가장 원형적인 차이의 관계로서 성차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리가레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관계적인 행동을 통해서’라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으로 생성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본능과 욕망을 변형하는 것, 특히 타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언어-사고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을 변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성이 고유한 차이를 지닌 존재로서 만나 교환하는 방식이 다른 종들과 달리 문명적인 차원을 획득할 때 인간적인 생성이 가능해진다(Irigaray, 2008: 31).

이리가레는 이를 둘(two)로 표현하는데, 그녀는 지금까지의 일자의 문화가 아닌 둘이 됨(to be two)을 통해 더 현실적이고 더 공정하며 더 보편적인 문화의 재정초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Irigaray, 2000a; 2001, 2008). 또한 이리가레는 조화로운 시민적 공동체는 두 주체, 서로에게 절대적 타자인 구별되는 성을 존중하는 관계에 기초해서만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Irigaray, 2000b). 물론 이러한 기획의 출발은 여성의 성의 고유성이 인식되고 존중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대개 철학적 사유에서 인간적인 생성은 자연 상태에서 문화 상태 또는 영적인 상태로의 도약을 위한 고독한 여정으로 표현된다. 또한 이러한 여정에서의 목표의 달성 즉, 진리나 신과 같은 이상적인 것への 도달은 얼마간 인간성의 포기를 대가로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육체적 욕망을 억압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고양된다는 관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리가레는 인간성의 포기가 아니라 그 실현을 옹호한다. 그녀에 따르면, 인간적 생성은 우리가 인간임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의 한 방식이 육체를 부정하지 않고 타자와 관계를 맺는 인간적 방식을 창조하는 것이다(Irigaray, 2008: 31).

이러한 인간적 생성은 더 이상 고독한 여정에 상응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 단계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자와 더불어 결정된다. 여기에서

타자는 나와 동일한 이상 또는 절대를 공유하는 타자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 속한 타자, 내가 나와 다른 인간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타자이며 그 다름의 원형이 바로 성차이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여성과 남성은 각자의 고유한 자연, 서로 환원 불가능한 세계에 속한다. 따라서 그러한 것으로서 성차를 배려하고 배양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단계를 개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성차는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제시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포섭되거나 동화될 수 없는 차이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이 한계로 인해 우리는 타자에게 개방적인 동시에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타자에게 향하면서 동시에 자기를 보존하는 이 두 운동은 인간으로 생성되는 과정, 즉 타자와 맺는 관계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요컨대, 이리가레가 주장하는 성적 차이의 윤리로서 ‘둘의 생성’은 자신을 포기하거나 내주지 않으면서 타자와 관계 맺고 사랑하는 문화의 창조와 관련된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 속에서 둘을 유지함으로써 타자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다. 두 상이한 주체가 그들 사이에 공간(interval)을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것, 하나가 다른 하나에 속하지 않으면서 둘 사이의 욕망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 각각의 자신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동시에 이 한도를 넘어 타자를 만나는 것이 둘의 윤리라는 것이다.

이리가레가 보기에 절대적 타자성은 두 성의 형식 속에 존재하며 만약 그것이 그들 사이의 공간, 하나의 성이 일방적으로 영유·합병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공간으로 인정된다면 창조적인 변증법이 작동할 수 있다. 이처럼 이리가레에게 변증법의 부정(negativity)은 침범될 수 없는 경계, 곧 결코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타자의 경이로움(wonder)과 신비를 일깨우는 사이의 공간이다(Irigaray, 2001).

이러한 논의는 성간 적대, 혐오의 문화, 성적 대상화에 따른 폭력의 문제들을 다루는 윤리적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현실에 존재하지 않

는 중성적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식으로는 여성혐오를 문제 현상으로 인식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차를 사유하는 이리가래의 논의는 여성에게 고유한 권리나 위협을 드러내고 여성의 주체성을 옹호하는 사고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성차의 윤리는 여성혐오가 일자의 논리에서 기인하는 여성적인 것의 배제 또는 여성의 고유성에 대한 폭력임을 드러내고 이를 감축할 수 있는 전망을 제시한다. 동등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두 주체의 공존을 전망하는 성차의 윤리는 합일 또는 진정한 ‘하나’가 되는 데서 정점에 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보존하는 데서 성립하는데 이는 결국 성차, 즉 여성의 차이를 가시화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옹호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6. 결론

여성혐오 그 자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여성은 소유와 교환의 대상이었고 문명 전반이 조직되는 방식에서 여성의 ‘타자화’는 일종의 상수였다.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녀’ 담론 역시 전통적인 ‘여성성’ 통념을 반영하고 재생산하는 다양한 변종일 뿐, 새롭게 등장한 관념이라고 할 수 없다. 여성을 ‘무질서’로 표상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동서양을 관통하는 지배적인 문제의식 중의 하나였으며 여성을 육체로 환원하는 물리적, 담론적 실천이 날이 갈수록 극악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배제와 폭력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며 오늘날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이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유와 평등을 제한받는 것은 불의라고 인식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본성을 근거로

여성을 인간성으로부터 분리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부인한 데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를 제기해왔다.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 및 정신적·육체적 완전성의 존중을 옹호한 페미니즘의 실천이 없었다면 오늘 여성이 달성한 지위와 사회적 변화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가부장적 문명의 확립 이래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싸워온 이들에게 부여된 해방과 자유의 기표가 페미니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즘이 오늘 무관심과 기피를 넘어 혐오와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 여성혐오의 한 양태라는 점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물론 페미니즘에 대한 공공연한 적대 역시 새로운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성별 위계에 균열이 생기고 여성의 진출이 가시화될 때 그에 대한 반격(backlash)은 늘 있어왔고, 평등을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다양한 공격도 상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그것은 페미니즘이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인식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페미니즘은 시효 만료된 낡은 기획이라는 대중적 인식이 기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안티페미니즘으로 이것이 현대 여성혐오의 양상이라는 것이다. 포스트페미니즘의 시대는 또한 성별 관계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남성의 불안이 여성에 대한 원한의 감정으로 표출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남성의 피해의식, 즉 성차별의 희생자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인식은 한국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며 포스트페미니즘 시대 여성혐오를 조직하는 기본적인 정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혐오가 오늘날 인터넷이라는 물리적 기반과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작동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인터넷 기술은 남성적 환상에 기반한 왜곡된 표상을 현실과 구별되는 독자적 세계로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져가는 ‘정보’로서 여성혐오의 영향력은 가상 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데 매일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현실의 인간들의

사고와 언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남성에게는 피해의식을 여성에게는 자기혐오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본문에서 지적인 바와 같다.

벡(Beck, 1992)은 『위험사회(Risk Society)』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위험이 고질적으로 수반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불확실성이 체계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 또한 예외는 아니다. 흔히 얘기되는 이 기술의 부작용으로는 정보 격차, 익명성이 야기하는 폭력, 거짓 정보에 의한 피해 등이 있는데 인터넷 여성혐오도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 인공물에 의해 초래된 새로운 위험이 늘 그렇듯, 인터넷 여성혐오도 장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집합적 사고와 민주적 토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성간 적대와 혐오의 문화를 반성하면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결론은 상호 환원불가능한 차이를 지닌 두 성이 주체로서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획은 벗어나야 할 기획으로서 페미니즘을 용도 폐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정치적 기획으로서 페미니즘은 재개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며,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페미니즘은 성차를 진지하게 사고하고 절대적 타자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윤리적 모색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오늘 여성을 욕망하는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타자 여성에 대한 원한과 혐오가 아니라 여성을 주체로 승인하고 마주하려는 태도와 이를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리가레(Irigaray, 2001; 2008)가 주장하는 것처럼, 타자와 자신으로 향하는 이중의 운동을 통해 자기를 보존하고 절대적 타자성도 존중하는 관계를 실천하는 것이다. 요컨대 타자와 진정한 차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타자를 대상으로 희생시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고 확립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각인의 욕구와 욕망을 존중하는 비위계적인 관계를 지향할 수 있을 때 두 주체의 대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성차의 윤리는 공동체 성원 상호 간의 신뢰가 낮아지고 배제와 혐오의 정서가 만연한 한국사회의 위기를 성찰하는 데 중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권의 한 요소가 동료 시민과의 유대라고 할 때 이를 형성하고 또 장려할 수 있는 것은 시민성(civility), 즉 예절이며 이는 새로운 양성의 관계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하고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하는 관계의 확립은 바로 차이를 존중하고 또 학습하는 시민성을 배양하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석. 2013. “〈일간베스트저장소〉, 일베의 부상”. 『문화/과학』 75호: 273-302.
- 김수아. 2014.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여성단체연합.
- 여성가족부. 2013. 『2013~2017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여성신문』. 2015. 2. 10. (<http://www.womennews.co.kr/news/80745#.VTxvHGmwf1W>)
- 윤보라. 2013.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제57호: 33-56.
- 이길호. 2012. 『우리는 디씨』. 이매진.
- 이길호. 2014. ““일베”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 『시민과세계』 제25호: 244-256.
- 이재경 외. 2009. 『국가와 젠더: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한울.
- 정대훈. 2013. “일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역사문제연구』 제30호: 331-341.
- 『중앙일보』. “페미니즘의 종언”. 2015. 1. 28.
- 치즈코, 우에노. 2014.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서울: 은행나무(上野 千鶴子. 2010. 『女ざらい』. 紀伊國屋書店)
- 테일러, 찰스. 2001. 『불안과 현대 사회』. 송영배 역, 서울: 이학사(Taylor, Charles. 1991. *The Malaise of Modernity*, Anansi).
- 통계청.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2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한겨레21』. “전설의 가방을 찾아서”. 2015. 10. 19. 제1082호.
- 한윤형. 2013. “한국 좌우파 투쟁의 흐름 속에서 ‘일베’를 바라보다: ‘일베’는 기존의 좌우파와 어떻게 닮았고, 또 다른가”. 『진보평론』 제57호: 14-32.
- Anderson, Kristin J. 2015. *Modern Misogyny: Anti-Feminism in a Post-Feminist Era*. New York: Oxford Univ. Press.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Newbury Park, Calif.: Sage.
- Betz, Hans-Georg. 1993. “The New Politics of Resentment”. *Comparative Politics* 25(4): 413-427.

- Castells, Manuel. 1996.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Collin, Françoise. 1993. "Philosophical Differences". Georges Duby and Michelle Perrot (eds.), *A History of Women in the West V*. Cambridge, Mass. :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Beauvoir, Simone de. 1977. *The Second Sex*, trans. and ed. by H. M. Parshley. [Harmondsworth, Eng.]: Penguin.
- Elshtain, Jean Bethke. 1981. *Public Man, Private Woman. Women in Social and Political Thought*. Princeton Univ. Press.
- Fraisse, Geneviève. 1993. "A Philosophical History of Sexual Difference". Georges Duby and Michelle Perrot (eds.), *A History of Women in the West IV*. Cam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more, David D. 2001. *Misogyny: The Male Malady*.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Irigaray, Luce. 1985. *This Sex Which Is Not One*, tr. by C. Porter with C. Burke. Ithaca, N.Y: Cornell Univ. Press.
- _____. 2000a. *Why Different? A Culture of Two Subjects: Interviews with Luce Irigaray*. Semiotext(e).
- _____. 2000b. *Democracy Begins Between Two*, trans. by Kirsteen Anderson. London: Athlone Press.
- _____. 2001. *To be Two*, trans. by Monique M. Rhodes and Marco F. Cocito-Monoc.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8. *Conversations*. London; New York: Continuum.
- Levmore, Saul and M. C. Nussbaum (eds.), 2010. *The Offensive Internet,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 Press.
- Lloyd, Genevieve. 1993. *The Man of Reason, "Male" and "Female" in Western Philosophy*.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Nussbaum, Martha C. 2010. "Objectification and Internet Misogyny". S. Levmore

- and M. C. Nussbaum (eds.), *The Offensive Internet,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 Cambridge, Mass.; London: Harvard Univ. Press.
- Whelehan, Imelda, 1995, *Modern Feminist Thought: From the Second Wave to Post-Feminism*, Edinburgh: Edinburgh Univ. Press.

Abstract

Internet Misogyny in a Post-Feminist Era

Chung, In-Kyoung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of Humanit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at is new about the recent misogyny focusing on the internet culture. A great many communicative players are interacting in cyber communities where hatred toward women is not unfamiliar. It is also remarkable that the anti-feminism is the main element in this online misogyny. The article is to critically analyse the anti-feminist feeling in relation to the post-feminist notion that the feminist movement is unnecessary. The last part of the study is outlining the ethics of sexual difference as the resource for reflecting today's misogyny.

Key words

internet, misogyny, anti-feminism, post-feminism, ethics of sexual difference

논문 접수일: 2016년 1월 31일

논문 심사일: 2016년 2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6년 2월 24일